

책을 펴내며

박영숙 (재)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오늘 우리는 비정부 또는 비영리기구인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 질수록 민간기구의 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각각의 기능도 다양해지고 세분화 되어진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민운동단체만도 2만여개를 헤아리고 있다. 그 밖의 종교단체, 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 문화예술기관 또는 지역사회활동체 등을 포함하면 그 수는 엄청나다. 이들은 사회의 각부문에서 보다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어려운 당면문제는 무엇보다도 <재정>이라고 하고 있다. 시민에 의해 건전한 민주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선진국에서처럼 복지활동을 위한 정부지원이나 공익활동을 위한 기부문화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의 회비와 뜻있는 소수자의 후원금으로 지역사회봉사와 복지사업, 그리고 사회정의실현을 위한 시민운동을 지속,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도에서부터 민간공익재단으로서의 한국여성재단, 아름다운재단, 아이들과 미래, 환경재단 등의 출범으로 기부문화의 새로운 태동이 일고 있다. 또한 모금전문관련기관, 학회, 연구회가 만들어지고 워크숍과 세미나가 열리는 등의 본격적인 모금활동시대가 열린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모금을 해야하는 모든 기관들을 자극하고 활동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고 한정된 기부시장에서 각축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제 전업적인 모금 활동가들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

모금활동을 위해서는 계획수립에서부터 지도자, 직원,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일, 프로그램 관리운영, 개인기부자 및 고액기부자 개발 및 조직화, 정보화 시대의 모금활동기법 활용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이런때에 필요로 하는 것은 관련 문헌들이다.

한국여성재단이 첫 번째 기획으로서 이번에 펴내는 <모금활동의 성공전략 - Successful Fundraising>이란 책은 전업적인 모금활동가와 자원봉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지침들을 담고 있다. 본 재단은 4,000여개의 여성단체들에게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각단체들로 하여금 효율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모금기법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책을 기획하였지만 이 책은 사회운동체는 물론 재정을 필요로 하는 모든 기관들의 모금활동가들, 그리고 관련 학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의 저자인 조안 플래너건(Joan Flanagan)은 북미에서 가장 인기있는 모금활

이미 베이스는 씌워진 된 우점의 모점관련 서적을 통해 필자로서 1970년대
부터 다양한 베이스단체에서 모점합동지우봉으로, 리플기로, 그리고
모점관련모의 봉으로 서로를 두각을 나타내며 활약하고 있다.

이책은 저자가 그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주종재판관 모점관
기관이 모점합동지우봉 관련지우봉들의 인허부를 통해 얻어진
자료가 개개와 4년 모점합동의 노력으로 집약시켜 놓은 것이다.

이책에 담겨져 있는 모점관련 정보들이 비록 우리당합리는 저리
가 위약이 있어 활용하기에 대해서도 우리당의 각종 사회단체들, 복리
시설들, 후원회, 학교, 종교기관들이 그들의 자활문제 중 을 해결하고
조각조각이게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에 좋은 길잡이
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책의 발행 목적은 더로 애증으로 함양 분들의 습은 노고가 있어서
가능 했다. 본재판의 최대 실무처장이면서, 이책의 기획을 담당했던
이재호 팀장을 비롯, 본재판의 기획연구팀원들이 테리엘리스
인허내세영의 김생애님, 자취기교사인 권순복님, 대한KSCA연합회의
김복진 회로조직운영 위원회 팀장, 본재판의 기능장회 실무처장
그리고 실무관장인 이주비 부장의 수고를 기약한다.

이들 모두는 이책의 발행자격을 가능한 한 독자들이 볼라 쉽게
이해하게 하기위한 작업을 하는데 자기 회교후의 앞 다투는 외간을
아낌 없이 함해하여주고 지혜를 모아주었다.

또한 이 책을 감수하여 주신 서울대작교 사회문화학과 조흥식
교수님, 책의 발행을 자우봉으로 수고한 안재권님, 그리고 이책의
출판을 수락하여 주신 한지현의 김진환 대표님께 감사한 사의를
함께하여 이책을 펴내게 된 기쁨을 나누다.

2002. 10